



'TOP5' 연구중심대학 기틀 글로벌 명문대 업그레이드

취임 2주년 전남대 지병문 총장

어진 대형 국책연구과제 수행행진은 전남대의 연구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총사업비가 298억 원에 이르는 '마이크로 의료로봇 구축사업'을 비롯해 '해양교란 유해생물 연구센터(295억원)', '농업생산 무인자동화 연구센터(198억원)' 등 굵직한 사업들을 유지했다. 총장 취임 이후 2년 동안 유지한 10억원 이상 대형 국책연구과제가 18건에 이르며, 이들 과제의 총사업비만 해도 2000억원이 넘는다.

에서 거둔 돌보이는 성적이다. 이처럼 취업률이 상승한 것은 지병문 총장 취임 이후 취업 전담조직인 '융합인재교육원'을 신설하고, 각 단과대학마다 취업전담 조교(CM)를 배치하는 등 맞춤형 취업지원 정책을 편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했다. '지역사회에 활짝 열린 대학'을 목표로 구체적인 사업과 실천적 프로그램으로 지역민 곁으로 바짝 다가서고 있다. 지난해 시작한 범시민 독서문화운동 '광

10억이상 대형 국책사업 18건 유치 총 사업비 2천억원 넘어
취업률 51.4%로 전년보다 3.9% 상승...10대 국립대 중 3위
'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 '도시텃밭' 등 지역사회 소통 강화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취임한 전남대학교 지병문 총장이 지난 21일로 2년의 상반기 임기를 마쳤다.

지병문 총장은 2년의 임기 동안 대학의 연구와 교육, 취업, 국제화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면서 전남대가 '글로벌 명문대학'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대형 국책 연구과제를 잇따라 수주해 '국내 TOP5' 연구중심대학의 기틀을 다졌고, 각종 대학평가 및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도 발군의 성적을 냈다. 무엇보다 그간 부진했던 취업률이 크게 올라 지역민들의 격정을 덜어줬다. 우선 연구력 증진이 눈에 띈다. 지난해부터 이

2014년 교육부의 지방대 특성화사업 선정 결과는 교육 분야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전남대는 10개 신청 사업단 가운데 7개가 선정돼 사업단 수 기준으로 전국 공동 4위를 기록했다. 인문·사회계와 이공계를 망라한 사업단 선정으로 기초 학문 보호 및 고른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거점 국립대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수년 동안 지역민들에게 격정을 안겨줬던 취업률을 대폭 끌어올린 것은 무엇보다 큰 보람이다. 전남대는 2014년 6월1일자 취업률 공시에서 51.4%로 지난해에 비해 3.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취업률 하락 추세 속

주·전남이 읽고 특 하다'가 지역민과 언론의 호응 속에 빠르게 뿌리를 내렸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실습부지 일부를 '도시텃밭'으로 조성해 지역민에게 분양하는 도시농업체험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리걸클리닉'과 연말 '송년음악회'도 지역과의 소통강화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지병문 총장은 "지난 2년 동안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변화와 혁신의 길에 동참한 결과 대학 전반에 역동성이 느껴지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남은 2년도 변화와 혁신의 끈을 더욱 조여 전남대를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동신대 군사학과, 전원 태권도 단증 취득

재학생 16명 승단심사 합격

올해 출범하자마자 군 장학생 시험 최종합격률 87%로 전국 대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합격률 기록을 세운 동신대학교 군사학과 재학생 전원이 최근 태권도 단증을 획득, 명문 군사학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과시했다.

동신대 군사학과(학과장 고재휘 교수)에 따르면 재학생 중 기존 유단자를 제외한 무단자 16명이 태권도 승단심사에 응시해 전원 합격함으로써 1학년 학생 29명 전원이 태권도 유단자가 됐다.

군사학과는 학업과 미래 군사전문가가 되기 위한 체력단련 및 군장학생 시험 준비에 집중하기 때문에 실제 다양한 시험과 평가가 실시되는 1학년에 구성원 전원이 유단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여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출범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재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을 통해 규칙적인 훈련을 하고 개인 맞춤형 교육과 군사전문가 초청 특강,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채희종기자 chae@



"이웃사랑 도착이요"

호남대학교 사회봉사센터(센터장 조규정)는 연말연시를 맞아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10가구를 방문해 '2014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호남대 제공>

호남대, 오늘 생태관광 공동학술대회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소장 심연수·경향학과)와 관광문화연구소(소장 김진강·호텔경영학과)는 2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호남대 국제회의실에서 '세계시민성과 복원력(Resilience and Global Citizenship)'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터스텔라'에서 예고하듯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생존을 위한 인간들의 세계시민성 기반 복원력을 다루게 된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미시간 주립대학을 비롯해서 호주, 영국 등지에서 연구를 해온 다수의 호남대학교 교수들이 참석해 생태관광 및 환경과 관련된 분야의 학제적 발표와 토론을 주도하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정성원 남부대 교수 '자동차 산업 발전' 광주시장 표창

남부대학교 자동차기계공학과 정성원 교수가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국제그린카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표창을 받았다.

정성원 교수는 지역의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2013년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정책연구회 자동차분과 위원, 산업직접경쟁력 강화사업 금융-자동차 클러스터 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미래 산업추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자동차

산업 성장에 기여한 바를 인정 받았다. 특히 2014년 발족된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을 위한 기획사업 추진단의 자동차 경량화지원센터 분과위원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기도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산·학협력 선도 조선대 학과 '인기'

재료공학과, 기업밀착형 교육... 전국 선호학과 5위 식품영양학과 'LG 디오스 김치특특' 공동 연구

대입 정시모집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로부터 경쟁력을 인정받은 학과나 산업계 활동이 활발한 교수들이 포진한 학과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조선대 재료공학과(학과장 신동찬)는 교육부의 '지역 특성화 우수학과'에 선정된 명품학과로 손꼽힌다. 재료공학과는 첨단 산업 전반에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료의 구조, 물성, 공정, 성능과 평가 등에 대해 교육하고 연구하는 학과이다.

재료공학과는 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장학금 재원을 확충해 산학협력 교육을 해왔다. 올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지방대특성화사업(CK-1) 주관학과로 선정된 데 이어 '지역특성화 우수학과'에도 선정돼 호남권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명품학과로 평가받고 있다.

재료공학과는 두 사업의 선정으로 5년간 18억원의 장학금과 학생지원 예산을 확보해 우수학생 선발에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게 됐다. 재료공학과는 교육부의 특성화사업과 LINC사업에 참여하면서 호남권 자동차, 전기전자, 광산업, 금형 등 부품소재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과과정과 기업밀착형 교육으로 지역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어 지난해 전국 재료공학과 중 산업체 선호학과 전국 5위에 선정됐다.

식품영양학과는 교수진이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의 취업 문이 한층 넓어지고 있다. 올해 LG전자가 출시해 히트한 2015년형 김치

냉장고 '디오스 김치특특'은 LG전자가 조선대 김치연구소(연구소장 김진경)를 맡고 있는 장해춘 식품영양학과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만든 제품이다. 장해춘 교수는 김치 유산균 전문가로 첫손에 꼽힌다.

같은 학과 김경수 교수는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17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SCI 논문 56편을 포함해 160편의 논문을 게재·발표했으며 최근 5년 동안 총 16건 27억 원에 달하는 주요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또한 김복희 교수는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재준 교수는 광주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을 맡아 어린이급식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TV조선 드라마 스페셜

최악의 결혼

박시연 | 배수빈 | 노민우 | 엄현경 9월 27일 [토] 밤 8시 30분 첫방송

제작 C-STORY DRAMA PRODUCTION